

제 1 장 서 론

1.1 연구 목적과 의의

접수 관계류 동사들이란 간단히 말하면 동사의 대상물이 한 편으로부터 다른 편에까지 옮기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그런데 사회 발전에 따라 뜻이 완전히 같거나 비슷한 단어 두 개 이상을 가지는 현상이 생겨서 유의어로 형성되었다. 유의어 현상은 사회 발전에 따라 인간이 세상만물에 대한 인식이 부단히 심해져서 생기는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유의어의 산생으로 하여 사람들이 사물에 대한 묘사는 더 세밀해지고 형상화되고 생동해지며 언어 표달이 더 정확해 지게 했다. 이와 동시에 불필요한 오용 현상도 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외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유의어의 구별이 난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유의어의 구별은 아주 필요한 작업이 된다.

“얻다” 와 “받다” 는 사전 속의 의미 향이 다르지만¹ 중국어가 제 1 언어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 두 단어의 의미 향을 보고 거의 중국어의 “得到, 獲得, 取得” 등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단어들은 대상물이 “얻다” 나 “받다” 때문에 한편으로부터 다른 편에까지 옮기는 것을 나타내는 접수관계류 동사이다. 그러므로 “얻다” 와 “받다” 는 접수관계를 나타내는 공통의미²를 지니기 때문에 유의어³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나 영어에는 그 두 단어에 대한 해결은 다 있어도 유의어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어가 제 1 언어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를 배울 때에 중국어의 각도로부터나 보조 도구로서의 영어로부터 이 두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다 쉽지 않은 일이다. 필자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얻다” 와 “받다” 를 어떻게 잘 구

¹ “받다” 의 의미 향은 보통 10 가지 이상이고 “얻다” 의 의미 향은 보통 10 가지 좌우이다.

² 공통의미는 동의어를 이루는 매개 단어의 어휘적 의미의 공통성에 토대한다. (김동익 1983:40)

³ 유의어란 의미의 공통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단어들의 계열을 말한다. (김동익 1983)

별하여 쓸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잘 대답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특별한 상황 외에 “받다” 를 쓰면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도 마찬가지다. 접수관계로서 나타날 때에 “받다” 의 종합 사용률은 “얻다” 보다 훨씬 많다.⁴ 그리고 《국어 어휘론 개설》(金光海 집문당 1993)에 수록된 “일상어 사용빈도 순위표” 및 문교부, 서성국, 이응백, 정우상, 국어연구소의 “국어의 여러 가지 고빈도 어휘표” 에 나타난 “받다” 의 순위는 모두 100 자리 이내에 있다. 반면에 “얻다” 는 빈도 순위표 100 자리 이내에 나타난 경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두 유의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은 아주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접수 관계를 나타내는 유의어로서의 “얻다” 와 “받다” 를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 1 언어가 중국어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얻다” 와 “받다” 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정확히 쓸 수 있고 독립적으로 비슷한 종류의 유의어를 구별하여 쓰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2 선행연구

1.2.1 한국어에서의 연구

한국어에서 동사에 대한 전통적인 분류는 표 1 과 같다.

표 1: 전통적인 동사분류

| | | | | |
|------------|------------------|-----------------|-----|-----|
| 동사 | 기능에 따라 | 움직임이 미치는 대상에 따라 | 자동사 | |
| | | | 타동사 | |
| | 행위와 행위자와의 관계에 따라 | 능동사-사역성 유무 | 주동사 | 사동사 |
| | | | 피동사 | |
| 구문상의 기능과 위 | 본동사 | | | |

⁴ 한국문화사에서 편찬하고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에서 1996년에 출판한 《조선어빈도수사전》에 따라 과학기술면과 사회정치면에서만 “얻다”의 사용률은 “받다”를 초월한다. 각 사용률 비율은 아래 몇 가지와 같다. 종합 사용률 - 받다 : 얻다 = 1038 : 463, 과학기술면 - 받다 : 얻다 = 1 : 154, 사회정치면 - 받다 : 얻다 = 93 : 96

| | | | |
|--------|-----------------------|------------|--------|
| | | 치에 따라 | 조동사 |
| | 활용 형태에 따라 | 활용의 완전성 유무 | 완전 동사 |
| | | | 불완전 동사 |
| | | 활용의 규칙성 유무 | 규칙 동사 |
| | | | 불규칙 동사 |
| 의미에 따라 | 순시 완결 동작 동사(瞬時完結動作動詞) | | |
| | 지속 미완 동작 동사(持續未完動作動詞) | | |
| | 과정 동사(過程動詞) | | |
| | 상태 동사(狀態動詞) | | |
| | 관계 동사(關係動詞) | | |
| | 심리 현상 동사(心理現象動詞) | | |
| | 결여 동사(缺如動詞) | | |

(주: 李週行의 《現代國語文法論》(개정판)을 참조했다.)

이에 따르면 “얻다”는 기능에 따라 타동사이고 주동사이고 본동사이며, 활용 형태에 따라 완전동사이고 규칙 동사이며, 의미에 따라 과정 동사이다. “받다”는 기능에 따라 타동사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자동사로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주동사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피동사로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의미에 따라 “얻다”와 같이 과정 동사로 보는 경우도 있다.

또 하나는 자리 값에 따른 분류가 있다.⁵ “얻다”와 “받다”의 중심적 의미⁶에 따르면 대상물이 옮기는 뜻을 나타내고 구문 속의 필수 성분이 3 개임을 알 수 있다. (신현숙 1991) 그러므로 “얻다”와 “받다”는 3 자리 값 동사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신현숙의 《의미분석의 방법과 실제》에 수록된 “동사의 의미 분석 (받다 / 얻다 / 버리다 / 잃다의 비교 / 대조)”은 자리 값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주어(Subject), 대상(Object)⁷, 출발 장소 3

⁵ 문장의 핵심으로서의 동사가 문장에서 필수성분을 몇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떤 필수성분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지배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최윤갑 2005)

⁶ 중심 의미는 사용빈도수가 많거나 사용된 시기가 앞서서, 모국어 화자가 <형식-의미>와 같이 밀착된 의미로 생각하는 의미이다. (신현숙 1991:158)

⁷ 대상(object / thing)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표하는 용어로 쓴다. 물건, 소유물, 제목, 주제, 비물질적인 것, 환경, 사건, 사태, 감정, 일, 문제, 문물 등. (신현숙 1991:151)

개 문장 요소에 나타난 단어들의 의미 자질과 특징을 고찰하여 “얻다”와 “받다”의 의미와 선택 제한(selectional-restriction)⁸을 개괄해 내었다. 그리고 김원근, 김현권, 류시중, 백만규, 박진호, 심봉섭, 안근중, 우순조, 임준서 등이 편찬한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에서는 “얻다”와 “받다”를 문맥 속의 필수 성분에 따라 몇 가지 동음어로 나누어 문형을 통하여 “얻다”와 “받다”의 필수성분의 종류와 나타나는 단어의 의미 자질을 묘사했다. 그 밖에 “받다”의 피동적 특성의 각도로부터 고찰한 것도 있다. 최현배는 “받다”나 “당하다” 따위가 “하다”를 대치하여 피동문을 이룬다고 한 바가 있다. (서정수 1996) 그런데 서정수는 “받다”가 피동성을 나타낼 때에 주로 어휘적 의미로 말미암은 피동성 표현이라 함이 일관성이 있는 설명이 된다고 주장했다. (서정수 1996:1087) 그리고 우인혜는 “되다, 받다, 당하다” 및 “어 지다” 등에 대해서 피동문을 이루는 문법 요소로 보지 못하지만 피동성 의미를 가진 어휘만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말 피동 연구》(우인혜 한국문화사 1997)에서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서로 바꿔 써도 되는 경우와 바꿔 쓰지 못하는 경우를 고찰했을 뿐만 아니라 “받다”를 선택하여 피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얻다”와 “받다”의 특성과 성질에 대해서나 구문 구조에 대해서는 미세하게 논술했지만 어휘면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근의사(近義詞)로서 나타난 두 단어를 잘 구별하려면 아직 난점이 적지 않다.

1.2.2 중국어에서의 연구

“얻다”와 “받다”의 중심 의미는 중국어의 “索取類” 동사와 비슷하고 문형은 대부분 중국어의 “雙賓” 구조로 된다. 그러므로 “얻다”와 “받다”는 중국어나 한국어에서 자리 값 이론에 따라 세 자리 값 동사로 보는 경우가 많다.

張國憲과 周國光의 《索取動詞的配價研究》에서는 “얻다”, “받

⁸ 문맥에서 선택될 수 있는 형태소와 제한을 받는 형태소가 살펴져야 한다. 또한 선택될 수 있는 근거와 제한을 받는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문맥과 관련된 명사, 동사, 조사, 형용사 등이 연구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동사와 관련된 명사로 제한하여 살폈다. (신현숙 1991:151)

다” 와 비슷한 중국어의 索取類 동사에 대하여 특성, 문형, 의미 선택 등 면에서 고찰했다. 문형으로부터 고찰하면 “얻다” 와 “받다” 의 문형은 중국어의 “雙賓” 구조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므로 문형 면에서 이 두 단어에 대한 분석은 “雙賓” 구조와 자리 값 이론을 많이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常娜의 《三價動詞的句模研究》 속의 接類動詞 부분에서 “얻다” 와 “받다” 의 중국어 대응 단어가 의미(語義) 평면의 필수성분들로 구성된 기초 문장틀(基干句模)은 “施事 - 動核 - 當事 - 受事” 이라고 하고 문장(句法) 평면에서 “雙賓” 구조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런데 3 자리 값 동사의 범위가 전통적인 雙賓동사보다 넓다고 한다. (徐德寬 2004:24) 이 점에 대해서 “雙賓” 구조를 소개한 글에서 나타난 직접목적어(direct object)와 간접목적어(indirect object)의 관계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⁹ 총적으로 말하면 중국어에서는 주로 “얻다” 와 “받다” 의 중국어 대응의미를 고려해서 구문구조면에서만 고찰했다.

1.2.3 한국어와 중국어 대비연구

“얻다” 와 “받다” 는 중국어와의 대비연구는 지금까지 사전의 주석 외에 많지 못하다. 문장구조에서 주로 “雙賓” 구조 중의 간접 목적어의 각도로부터 失者賓語를 설정하여 “얻다” 와 “받다” 를 귀속시켜서 서술했다. (金岩 1997) 유의어로서 제 1언어가 한국어인 학자들은 중국어의 근의사(近義詞)에 대해서 의미(語義), 문장(句法), 형태, 화용(語用) 등 각도로부터 고찰하여 구별한다는 사람도 있다. (朴德俊 2003)¹⁰ 주로 의미소 형식으로 근의사(近義詞)에 대해서 고찰하여 구별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와 중국어 대비연구에서는 구문 구조와 유의어 구별 두 면에서 고찰했다. 구문구조에서는 목적어에 의하여 “雙賓” 구조를 형성할

⁹ 雙賓 구조가 중국어 기초적 문형은 “S + V + IO + DO” 이다. 그 속의 IO 와 DO 간의 관계는 대략 2 가지 있다. 하나는 V 때문에 IO 가 DO 를 가지는 것(가지게 되고 있는 것과 가지게 되어야 한 것은 V 때문에 못 되는 것을 포괄한다.) 이다. 또 하나는 V 때문에 IO가 DO를 잃어 버리는 것(잃어 버리고 있는 것과 잃어 버려야 된 것은 V 때문에 못 되는 것을 포괄한다.) 이다. (徐德寬 2004:86)

¹⁰ 여기서의 “의미”는 문장을 연구할 때의 의미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의미적 특성이라고 한다.

수 있는 중국어 단어와 한국어 단어를 고찰했고 유의어 구별에서는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 사람의 각도로부터 고찰했다.

총적으로 말하면 한국어 내부에서 “얻다” 와 “받다” 에 대한 논술이 비교적 충분하고 중국어와 한국어가 자신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어에서만 고찰하려면 어려워서 대비연구도 부족하다. 제 1 언어가 중국어인 한국어 학습자의 각도로부터 “얻다”, “받다” 와 같은 유의어를 고찰한 연구가 더 적다.

1.3 연구재료와 방법

어휘는 한 언어의 단어와 고정 단어 결합(단어의 등가물)의 총합이다. 단어는 문장을 지을 때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제일 작은 단위이다. 그러므로 한 언어로 잘 교체하려면 단어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필수적인 작업이다.

단어의 의미는 주로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휘적 의미란 사물이나 개념 따위를 가리키는 실질적 의미(substantial meaning)이다 (서정수 1996:44). 다시 말하면, 어휘적 의미는 인간들이 현실 현상에 대해서 개괄한 객관적인 평가들이다. 현실 현상은 인간들의 머리 속의 이성적인 반영이다. 어휘적 의미는 단어의 이성적 의미이고 단어 의미의 기초적 요소이다. 어휘적 의미는 인간들이 현실 현상에 대한 최초 인식으로서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같은 사물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 주관적 태도가 다를 때가 있으므로 객관 사물에 대한 개괄에 어떤 감정 색채를 부가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가 사회적으로 약속되었으면 단어의 색채적 의미가 된다. 이렇게 해서 단어가 객관 사물에 대한 개괄을 토대로 하여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단어의 의미의 모호성과 개괄성은 구체 문맥과 결합하지 않아도 단어가 일정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결정했다. 이것은 단어의 추상의미이다. 이것은 인간들은 단어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고 다양한 구체적 의미를 포괄한다.

문법적 의미란 조사나 문말 형태 따위 문법 요소가 나타내는 형

식적 의미를 말한다. (서정수 1996:44) 다시 말하면 단어가 구체적 문맥에 들어가서 나타내는 어떤 문법 관계나 의미(語意) 관계인데, 단어와 문맥 속의 각 요소간의 관계라고 한다.

한 단어를 잘 이해하려면 그가 나타내는 현상이나 사물을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문맥 속에서 나타내는 관계나 의미도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얻다” 와 “받다” 를 잘 구별하려면 사전 속의 의미 항을 토대로 하여 어휘적 의미를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휘적 의미를 토대로 하여 문맥에 들어가서 문형을 통하여 문법적 의미와 관계도 잘 분석해야 한다.

“3 가지 평면 (三個平面)” 이론은 문장을 분석할 때 문장 (句法 Syntactic), 의미 (語義 Semantic), 화용 (語用 Pragmatic) 3 가지 면을 결합하여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그 중의 문장 평면은 문장에 대해서 문장론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이다. 문장 속의 단어 (부호) 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다시 말하면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로 두 가지 면에서 한다. 하나는 문장 성분을 확정하고 문장 구조 방식을 판단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즉 문장을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규정어, 부사어 등 성분으로 나눈다. 또 하나는 문장 구조의 층차를 확정한다. 즉 문장 속의 단어들 간의 관계를 직접관계와 간접관계,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나눈다. 의미평면은 의미론적으로 문장을 분석한다는 것이다. 문장 속의 단어는 객관사물 (부호와 내용) 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다시 말하면 형식과 의미를 결합하여 문장을 고찰한다. 화용평면은 화용론적으로 문장을 분석한다는 것이다. 문장 속의 단어와 사용자(부호와 사람) 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문장평면과 의미평면은 정태적인 분석과 표현이고 화용평면은 표달에 치중하는 동태적인 분석이다. “3 가지 평면” 이론에 따르면 동사가 문장을 만들 때에 그 자신의 어휘적 의미에 따라 꼭 그와 함께 나타나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요소는 의미평면에서 나타나면 자리 값이다. 다시 말하면 자리 값은 의미평면에서 연구하는 내용의 하나이다. (胡裕樹 1994) 그리하여 동사의 기초 문장들을 형성한다. 문장평면에서 나타나면 각 문법 성분으로 나타나서 문형을 형성한다. 이런 요소들은 다 동사가 문맥 속의 필

수성분이지만 화용에 따라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사를 고찰할 때에 의미평면과 문장평면의 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동사의 문법적 의미를 고찰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얻다”와 “받다”를 구별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본 논문의 초점은 문장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단어 구별에 두는 것이므로 중점은 단어의 의미 자질을 분석하고 개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용평면에 미치지 않고 주로 문장 성분 각 층차 간의 의미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연세한국어사전》(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 두산동아 1998), 《겨레말 용례사전》(박용수 서울대학교출판사 1996.10), 《우리말 큰 사전》(한글 학회 어문각 1992.1),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 출판사 1992.3.15) 등 사전 속의 의미향과 예문을 다시 분석하고 일부 소설, 문법책, 교과서 등에서 나온 “얻다”와 “받다”를 포함한 문장이나 용례에 대해서 분류 고찰하여 중국어가 제 1 언어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휘적 의미를 개괄한다. 다음 《우리말 피동연구》(우인혜 한국문학사 1997),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1999.10.9),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홍재성, 김원근, 김현권 등 두산동아 1996.10) 등에서 나온 문형을 토대로 하여 주로 문장 구조와 각 성분 간의 의미를 분석한다. 따라서 대비언어학 이론을 이용하여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 두 가지 면에서 “얻다”와 “받다”의 차이를 찾아 낼 뿐만 아니라 중국어와의 대응 형식도 탐구한다.

제 2 장 “얻다” 와 “받다” 의 의미 향에 대한 분류와 비교 분석

대상물이 이동성이 있고 주어라 지는 것은 “얻다” 와 “받다” 가 다 지니는 공통 의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통 의미는 “얻다” 와 “받다” 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출한 추상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얻다” 와 “받다” 는 공통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개별 의미도 지닌다. 단어는 문장을 지을 때에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제일 작은 단위이고 단어의 어휘적 의미는 단어를 이해하거나 구별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언어를 배울 때에 단어의 어휘적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필수적인 작업이 된다.

그런데 언어 현상 속에는 다의어와 동음어 두 가지 현상도 있으므로 단어에 대한 이해가 더 어렵게 된다. 다의어는 한 단어가 의미 향을 많이 지니고 있는 현상이고 동음어는 발음이 같거나 뜻이 서로 다른 단어들을 말한다. 그 두 가지 현상의 구별을 간단히 말하면 동음어의 의미 향 사이에는 아무 연계도 없고 다의어의 여러 가지 의미 향 사이에는 연계가 있다는 데 있다. 동음어는 부동한 두 단어이므로 단어의 의미는 종합적이 아니고 다의어는 한 단어가 연계할 수 있는 몇 가지 의미 향을 지닌 것이므로 단어 의미의 종합이다.

“얻다” 와 “받다” 는 이런 두 가지 현상을 다 지닌 단어이다. 또 사람에 따라 사유방식이나 이해가 달라서 같은 단어에 대해서도 여러 사전의 해석이나 의미 향의 수량이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제 2 장에서 필자는 주로 “얻다” 와 “받다” 가 각기 지닌 어휘적 의미에 대해서 추상적 의미, 구체적 의미, 외관적 의미 3 가지 종류에 따라 다시 분류하고 분석한다. 추상적 의미란 단어가 제일 직접적이고 뚜렷하게 관련한 사물이나 현상이다. 현실 사물이나 객관 현상에 대한 높은 개괄과 추출을 거친 추상적인 것이다. 인간들이 첫 눈에 봐서도 생각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 의미란 인간들이 추상적 의미를 둘러싸고 문맥과 결합해서 생기고 사회적으로 약속

된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의미이다. 그 속에 사용빈도수가 많은 것은 중심 의미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주변 의미이다. 사전 속의 첫번째 의미는 항상 중심 의미인데, 그에 의거해서 단어의 추상적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외곽적 의미란 단어의 추상적 의미에서 추출하기 어려운 의미이고, 어떤 상황에서 형성된 비교적 고정적인 의미인데, 추상적 의미를 지닌 단어와 동음이의어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2.1 “얻다”의 어휘적 의미

《조선말 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3.15)에서 “얻다”의 의미 항은 8 개인데, 첫번째 의미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서 주어가 가지다”이다. 《연세한국어사전》(연세 대학교 언어정보 개발연구원 두산동아 1998)에서 “얻다”의 의미 항은 15 개인데, 첫번째 의미는 “(남에게 달라고 하여)받아 가지다”이다. 《겨레말 용례사전》(박용수 서울대학교출판사 1996.10)에서 “얻다”의 의미 항은 9 개인데, 첫번째 의미는 “(잃어 버렸던 것을) 찾아서 주어가 가지다”이다. 《우리말 큰 사전》(한글 학회 어문각 1992.1)에서 “얻다”의 의미 항은 11 개인데, 첫번째 의미는 “거저 주는 것을 받아 가지다”이다.

본절에서는 주로 이상의 여러 사전에서의 첫번째 의미에 따라 “얻다”의 추상적 의미를 추출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필자는 중국어가 제 1 언어인 한국어 학습자의 각도로부터 의미 항을 다시 분류한다.

2.1.1 “얻다”의 추상 의미

이상의 몇 가지 사전의 첫번째 의미에 따르면 “얻다”는 주로 찾거나 요구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주어에게 대상물이 생겨서 가지게 된다는 추상적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그는 높은 점수를 얻어 희망하는 대학에 당당하게 입학했다.

<연세한국어사전>

우리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 <연세한국어사전>

난 동포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용기를 얻었다.

<연세한국어사전>

그는 남보다 많은 지식을 쌓아 지위와 부를 얻으려 했다.

<연세한국어사전>

먼 친척을 찾아 얼마간의 용돈을 얻어 가지고 오는 길이었다.

<연세한국어사전>

이상 예문의 목적어들은 “점수, 성과, 용기, 지위, 용돈” 등인데, 목적어가 구체물이든 추상물이든 “얻다”의 행위자가 노력하여 자신에게 생겨서 가지는 것이므로서 목적어는 이동성을 나타낸다. 이런 추상적 의미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구체적 의미가 생겼다.

2.1.2 “얻다”의 구체 의미

“얻다”의 구체적 의미는 다 추상적 의미를 둘러싸고 생긴 비교적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얻다”의 구체적 의미도 주동적인 의미를 나타내야 한다. 그리하여 주로 아래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찾아서 가지게 되다.

예: 정선은 유월의 대답에서 무슨 재료를 얻으려고 물었다. <흙>
야포 연습을 나온 병정들에게서 그림책을 얻어 구경하던 일도 누엿이 연상되었다. <탑>

대동강에서 낚시질하던 배가 시체 하나를 얻었다. <무정>

이런 뜻을 나타낼 때에 “얻다”와 같이 나타날 수 있는 대상명사는 주로 결과로 찾아서 가지게 되는 것이다. 재료, 그림책, 도끼 등 구체 명사, 명공, 직공 등 인칭대명사, 광명, 구실 등 추상 명사 등은 “얻다”의 목적어로 될 수 있다.

<2> 요구하여 가지게 되다.

예: 그는 돈을 얻을 도리를 생각하였다. <지형근>

어머니의 흐리어 가시는 눈과 떨리는 손은 드디어 바느질 샅전을 못 얻게 하셨습니다. <전아사(餓遯辭)>

어머니는 쌀을 한 줌 얻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구나.

<낙조>

이런 뜻을 나타낼 때에 “얻다”의 목적어로 될 수 있는 명사들

은 대부분 돈, 샷전, 밥, 쌀, 고깃국, 세금 등 그냥 주지 않고 요구하거나 청구하여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3> 어떤 행동을 당하다.

예: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질거린다.

<동백꽃>

그는 과연 나에게서 얼마만한 위안을 얻고 갔던가. <그림자>

언제는 검사의 승낙을 얻기에 힘이 들구 애가 썩었다더니.

<경영>

이 때에 “얻다”의 목적어로서 나타나는 단어들은 대부분 “하다”를 붙여서 타동사로 될 수 있고 마음 속으로 일으키는 움직임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응원, 사랑, 승낙, 안심, 위안, 찬성, 양해, 판단, 감사, 교훈 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다”가 없이 그냥 어간으로 나타났는데 행동성을 지녀도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고 과정만으로 볼 수 있다. 주어는 이런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4> 어떤 영향을 당하고 의식형태나 감정이 생기다.

예: 학수는 시에서 얻은 열정과 죽음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묘안을 떠났다. <약령기(弱齡記)>

나는 큰 힘과 큰 기쁨을 얻소. <흙>

주임은 기세를 얻자 말이 술술 쏟아져 나왔다. <황혼>

이 때에 “얻다”의 목적어로서 나타나는 단어들은 대부분 추상명사인데 주어 자신에게 생겨서 가지게 되는 것이다. 주로 기운, 힘, 열정, 기, 용기, 만족, 기쁨, 능력, 묘안 등 심리명사들이다.

<5> 염원에 따라 대상물을 가지게 되거나 보유하다.

예: 그랬다가 대수롭지 않은 일에 기회를 얻어 의식 위에 떠오른 것이다. <탁류>

대번에 경성학교의 학감이라는 중요한 지위를 얻었다. <무정>

이만치 각국은 해외시장을 얻기에 노력하고 있네. <황혼>

이 때에 “얻다”의 목적어로서 나타나는 단어들은 항상 지위, 시장, 자격, 기회, 인기, 자리 등 원래 자신에게 없는데 노력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6> 결과로서 나타나다.

예: 그는 거기서 지식도 새로 얻었다. <부역>

형식과 선형도 해마다 우량한 성적을 얻었다 한다. <무정>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 <상록수>

이 때에 “얻다” 의 목적어로서 나타나는 단어들은 항상 결론, 성적, 지식, 문명, 효과, 만점, 승리 등 결과로 생겨서 가지게 되는 것이다.

2.1.3 “얻다” 의 외곽적 의미

여기서 말한 “외곽적 의미” 는 주로 앞에서 말한 “구체적 의미”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뜻으로 보일 수 있는 의미 항이다. 주로 다음과 같다.

<7> 꾸거나 빌다.

예: 나룻님은 이번에도 사실은 권생원에게 돈을 얻으러 개성으로 왔던 것이다. <농토>

권생원한테 가 빚을 얻어다 회사에 바치었다. <농토>

그래, 남의 집을 얻어 들었으면 고마운 줄은 모르고.

<석공조합대표>

이 때의 “얻다” 의 목적어로서 나타나는 단어들은 대부분 돈, 빚, 셋방, 집, 자전거, 방, 땅 등 구체물이나 돈과 관해서 대가를 내주어 빌려오거나 앞으로 돌려 줘야 되고 잠시만 가지게 될 수 있고 자기에 속하지 못하는 것이다.

<8> 남편, 아내, 사위, 며느리 등을 구하거나 맞다.

예: 또 어디다가 계집을 얻어 논 게지. <뽕>

서울 가더니 서방을 얻어 가지고 왔구나. <인간 문제>

무슨 팔자에 살아생전 그런 며느리를 얻어 보겠나. <상록수>

이 때의 “얻다” 는 완전히 중국어의 “娶, 嫁” 와 비슷한 뜻으로 나타나서 그것의 목적어는 대부분 첩, 며느리, 서방, 사위, 아내, 처녀 등 인칭대명사들이다.

<9> 병을 앓게 되다.

예: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원 혼이 되고 말았다. <고향>

배탈을 얻어 십여 일이나 설사까지 하고도 할 수 없이 이 밥을
먹게 되었던 것이다. <인간 문제>

눈이나 귀에 병신도 되고, 종신지질(終身之疾) 해소도 얻을 뿐
더러 <구마검(驅魔劍)>

이 때의 “얻다” 의 목적어는 주로 질병에 관한 명사들이다. 주
의할 만한 것은 이런 경우에 중국어로 번역하면 “得” 이지만, 전
에 나타난 뜻과 완전히 다른 뜻이다. 여기의 “얻다” 는 주동적으
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피동적으로 접수할 수밖에 없는 뜻이
다.

이상의 몇 가지 의미 분류 속에 제<7>, <8>, <9> 항은 완전히 독
립적인 뜻으로 보일 수 있는데, “얻다” 의 동음 이의어로 봐도
되기 때문에 외곽적 의미로 보았다.

2.2 “받다” 의 어휘적 의미

《조선말 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92.3.15)에서 “받다” 의
의미 항은 14 가지인데, 첫번째 의미 항은 “(주는 것을)응하여 가
지다” 이다. 《연세한국어사전》 (연세 대학교 언어정보 개발연구
원 두산동아 1998)에서 “받다” 의 의미 항이 18 가지인데, 첫번째
의미 항의 해결은 “(주거나 보내 온 것을) 가지다” 이다. 《겨레
말 용례사전》 (박용수 서울대학교출판사 1996.10)에서 “받다” 의
의미 항은 27 가지인데, 첫번째 의미 항은 “주는 것을 응하여 가
지다” 이다. 《우리말 큰 사전》 (한글 학회 어문각 1992.1)에서
“받다” 의 의미 항은 19 가지인데, 첫번째 의미 항은 “주거나 보
내 온 것을 들여 가지다” 이다.

본 절에서는 주로 이상의 여러 사전에서의 첫번째 의미에 따라
“받다” 의 추상적 의미를 추출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필자는 중
국어가 제 1 언어인 한국어 학습자의 각도로부터 주로 의미 항을 다
시 분류한다.

2.2.1 “받다” 의 추상 의미

이상의 몇 가지 사전의 첫번째 의미에 따라 “받다” 는 주로 대상물이 주어에 도착해서 가지게 된다는 추상적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경재가 회사에 왔다가 현옥의 전화를 받고 그 집으로 가던 날이다. <황혼>

“아닙니다 받으십시오.” <황혼>

양복 입은 소년에게서 비누와 수건을 받아 들고 간다. <무정>

그 곡조는 마침내 일동의 눈물을 받고야 말았다. <무정>

고부 때문에 그리 큰 영향을 받지 못하였다. <흙>

이상 예문의 목적어들은 “전화¹¹, 사표, 수건, 눈물” 등 구체물도 있고, “영향” 이런 행위성 추상물도 있는데, “받다” 의 행위자에 도착하고 가진다는 추상적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대상물이 행위자에 도착한 것은 행위자의 소원에 따라 도착하는 것과 소원없이 그냥 도착하는 것, 심지어 원하지 않아도 도착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의미가 “얻다” 보다 많이 복잡하다.

2.2.2 “받다” 의 구체 의미

“받다” 의 추상적 의미가 “얻다” 보다 훨씬 복잡하고 구체적 의미가 추상적 의미를 둘러싸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미항도 “얻다” 보다 훨씬 많다. 대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어떤 행동을 당하다.

예: 정말 없다면 뭣뭣이 나라에서 보조를 받아야 할 거요. <농토>

동네에서는 가장 인심 후하고 존경을 받은 집인 동시에 세력 있는 집이다. <병어리 삼룡이>

형보는 가끔 태수한테서 이러한 부탁을 받는다. <탁류>

이 때의 목적어는 대부분 “지배, 부탁, 전염, 멸시, 지배, 학대, 저주, 호출, 강요, 모욕” 등 “하다” 를 붙여서 타동사로 될 수 있는 행위 명사나 버림, 도움, 믿음 등 체언형 타동사들이다. 이 동사들은 “받다” 의 행위자에게 원하거나 싫지 않은 행위들이나 행위자의 의사에 어긋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이다. 이

¹¹ 여기의 전화는 기계가 아니라 소식, 정보 등이 행위자에 도착한다는 것이라고 본다.

때의 “받다” 는 타동사이지만 피동표현¹²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위자를 피동자로 봐도 될 것이다.¹³

<2> 경험해서 참다.

예: 집에 있으면 더 큰 고통을 받은 그는 일종의 위안을 얻느라고 상학하였다. <약한 자의 슬픔>

감전(感電)된 것 같은 찌르르한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김연실전>

견딜 수 없는 충동을 받은 까닭이다. <탈출기>

이 때의 목적어들은 대부분 “영향, 충동, 가책, 느낌” 등 구체적인 행위 명사가 아니라 심리적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명사들이다. 이 때의 행위자는 또 피동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3> 대상물이 주어의 의지에 따르지 않고 도착하다.

예: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을 때만치나 가슴이 설레었다.

<상록수>

마침 주임이 계봉이의 전화를 받아서 넘겨 준다. <탁류>

그러자 그 기별을 받은 우길의 아버지가 곧 서울서 내려왔다.

<탑>

이 때의 목적어들은 대부분 “편지, 기별, 전화, 통지서, 홍음, 답장, 전보” 등 정보를 단어들이다. 이 때의 “받다” 는 영어의 receive 와 비슷한데 주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싶든지 말든지 그냥 주어에 도착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4> 대상물이 주어에 도착하여 가지게 되다.

예: 경재는 그저 심상히 인사를 받았을 뿐이다. <황혼>

이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황혼>

이복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은 후, 비로소 한옆으로 꿇어앉습니다. <태평천하>

이 때의 “받다” 는 영어의 accept 와 비슷하다. 주로 도착한 것에 대하여 주어의 소원에 따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나타낸다. 주어가 주동권이 좀 있다.

¹² 피동 표현이란 문법적인 관점에서는 피동문으로 볼 수 없으나 그 의미적인 면에서 피동성을 보이는 것들을 통틀어 가리킨다. (우인혜 1997:145)

¹³ 우인혜의 《우리말 피동 연구》에 따라 “받다”, “되다”, “당하다”는 피동성의미를 가진 어휘이다.